

日帝징용 풀리지않는 恨 18

신평벌 잼버리 열기<화보> 19

경찰서 신기료장수 25년 22

조직검사 이용 폐암진단 23

집중분석

清算안된 韓日과거

올해로 광복을 맞은지 46주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지 반세기가 흐른 지금 일본은 우리에게 대한 「과거」를 청산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긍정과 부정이 교차한다. 정부차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지난65년 韓·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를 청산, 아시아의 동반자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한 셈이다. 그러나 민간차원에서 볼 때 일본의 對韓 과거청산은 아직 손도 대지 않았다. 광복의 뒤안길엔 아직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군인, 노무자들, 인간이하의 취급을 당했던 정신대, 원폭피해자등 일제잔행의 피해당사자 혹은 유가족들이 풀지 못한 한을 가슴에 간직한채 과거청산의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편집자註>

113 1991. 8. 13 3국판

1백만명중 '1%'만 보상

原爆 피해 挺身隊 강제徵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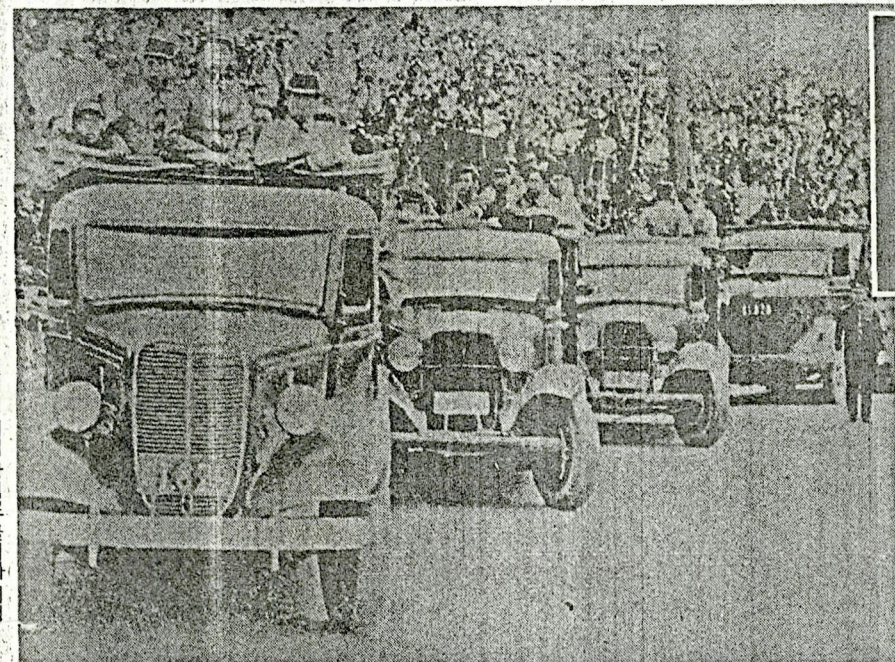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그들이 강제동원한 1백만명의 상의 한민(한인·한국인·노무자·정신대원)에 대한 피해배상을 아예 의면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협정및 자국내 법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보상을 불가능하다고 입장이자다.

「한일協定」 5억弗로 戰死者만 30만 日「끝난애기」: 정부서도 「재거룩」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그들이 강제동원한 1백만명의 상의 한민(한인·한국인·노무자·정신대원)에 대한 피해배상을 아예 의면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협정및 자국내 법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보상을 불가능하다고 입장이자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그들이 강제동원한 1백만명의 상의 한민(한인·한국인·노무자·정신대원)에 대한 피해배상을 아예 의면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협정및 자국내 법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보상을 불가능하다고 입장이자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그들이 강제동원한 1백만명의 상의 한민(한인·한국인·노무자·정신대원)에 대한 피해배상을 아예 의면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협정및 자국내 법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보상을 불가능하다고 입장이자다.



光復반세기 아진도 신의약 그 무명의정